

# #고객가치 최우선 #비대면 역량 집중 #新성장사업 발굴

〈SK매직 윤요섭 대표〉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

## 생활가전 CEO 신년사

### SK매직 윤요섭 대표

“고객만족·브랜드 신뢰 집중 투자”

###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체계적인 비대면 시스템 갖춰야”

###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

“남다른 열정으로 현장중심 업무”



SK매직 윤요섭 대표.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

‘제품·사업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기르고, 현장과 고객속에서 답을 찾자.’

정수기 등 환경가전을 포함해 소형 생활가전을 제조, 판매하는 중견기업·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새해를 맞아 임직원들과 함께 한 다짐이다.

5일 관련회사들에 따르면 SK매직 윤요섭 대표는 2021년 신년사를 통해 “SK매직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아이템 제품 개발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성장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ESG의 중요성도 덧붙였다.

94년 당시 SK네트웍스의 전신인 선정에 입사한 윤 대표는 금융팀장, 재무

실장을 거쳐 SK매직 경영전략본부장을 역임하다 이달 1일부터 대표이사로 SK매직을 이끌게 됐다.

아울러 윤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상황 및 고객 인식 변화가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변화하고, 고객들 눈높이도 훨씬 높아지고 있다”면서 “회사는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연구개발 및 품질, 고객만족(CS),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고객가치가 훼손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선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완벽한 제품이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서비스에서도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SK네트웍스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SK매직은 지난해의 경우 9월까지 764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연간 기준으로 ‘1조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문판매를 중심으로 생활가전기업을 직접 창업해 회사를 일군 오너 CEO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하게 신년을 시작하면서도 회사 임직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 추가 성장 모색에 나섰다.

교원그룹 장평순 회장, 청호그룹 정휘동 회장이 대표적이다.

장평순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전한 신년사에서 “항상 위기 때마다 능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번에도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기회는 위기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오는 것이며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다”고 전했다.

특히 장 회장은 그룹이 생활가전 뿐만 아니라 교육, 호텔, 상조 등을 두루 영위하고 있는 점을 들어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에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비대면 회원관리, 비대면 영업, 비대면 교육, 재택근무 등 비대면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이같은 시스템은 코로나가 종식되도 우리의 자산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부탁한다”면서 “업무에 임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해 생각하고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휘동 청호그룹 회장은 ‘열정’과 ‘현장’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열정”이라며 “올 한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남다른 열정’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업무는 현장 중심으로 진행돼야 하고 모든 문제의 정답은 현장에 있다”면서 “늘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채

워드리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때 청호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5년, 10년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사업 발굴과 확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활가전업계 1위인 코웨이는 기존 이혜선 대표 체제에서 새해로 넘어오면서 서장원 부사장(경영관리본부장)을 신임 각자 대표이사로 내정하고 2월부터 본격적인 각자 대표 체제 경영에 나선다.

신임 서장원 대표는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넷마블 투자전략·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 넷마블문화재단 대표이사를 거쳐 넷마블이 코웨이를 인수한 이후 코웨이 CF O를 맡아왔다.

코웨이 관계자는 “기존 이혜선 대표의 안정적인 경영 수행능력에 더해 미래전략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장원 부사장을 각자 대표로 내정했다”며 “이를 통해 코웨이는 ▲코로나(COVID-19)로 인한 대내·외 환경 변수 극복 ▲넷마블과의 시너지 고도화 ▲글로벌 코웨이 도약 기틀 마련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추가 육성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내달 8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정부가 작지만 강한 글로벌 기업 200곳을 적극 육성한다.

매출액은 100억~1000억원 사이로 직·간접 수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2020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6일부터 2월8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443개사를 선정했다.

특히 지원대상의 경우 올해엔 서비스

업 분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 자격 조건을 ‘매출액 50억~1000억원, 수출액 1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보다 낮춰 접수를 받는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4년간 중기부, 지자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마케팅, 자율프로그램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수출바우처사업 내 글로벌 강소기업 전용 바우처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240여 개사에 대해 수출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마케팅을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참여시 ▲우대가점 상향(산학연 콜라보 R&D, 수출지향형 R&D 2점→3점) ▲별도 기

술개발(R&D) 신설 ▲금융기관 참여 확대(국민은행) 등 지난해보다 R&D 금융·보증지원이 더욱 강화됐다.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 신청·접수는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나해 글로벌 강소기업은 미중 무역전쟁,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수출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대기업·중견기업보다 높은 기업 성장율을 보였다”면서 “앞으로 해외마케팅과 지자체 자율프로그램 등을 강화해 글로벌 강소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가 새로 문을 연 시몬스 맨션 평촌점 전경.

## 시몬스, ‘시몬스 맨션 평촌점’ 오픈

시몬스는 경기 안양 인덕원역 인근에 ‘시몬스 맨션 평촌점’을 새로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시몬스 맨션’은 시몬스 침대 본사가 임대료, 관리비, 인테리어 비용, 진열 제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100% 지원하는 매장이다.

대리점주가 비용에 대한 부담없이 매장 운영과 제품 판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동시에 소비

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몬스 침대의 선도적인 프로그램이다.

시몬스 맨션 평촌점은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주거 중심지이자 삼성디지털프라자 평촌점, LG베스트샵 평촌점, 롯데하이마트 인덕원점 등 대형 가전매장이 밀집된 핵심 상권에 위치해 이사 및 혼수 준비 고객 유입력이 우수하다. /김승호 기자

## 기보, 빨간 날 쉬는 中企에 보증 우대

운전자금 지원, 보증료 감면 등 적용

빨간 날 쉬는 중소기업은 앞으로 기술평가 보증시 우대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지난 4일부터 도입해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우대보증은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이 지난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시작해 올해부터 30~299

인 기업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유급 휴일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우대보증 대상기업은 올해 의무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을 도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유급휴일 전환이 의무화되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기업 중 해당 제도를 조기에 도입한 기업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관공서 공휴일 유급전환사업(장) 확인서를 받은 기업도 포함한다.

기보는 이들 기업이 유급휴일 전환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또



부산에 있는 기보 본사.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 듀오백 “10년전 가격으로 의자 구매하세요”

학생·사무용의자 9개 제품 프로모션

의자전문 브랜드 듀오백이 새해를 맞아 일부 제품을 10년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연다.

듀오백은 ‘어게인 2011, 응답하라 듀오백’을 주제로 이달 24일까지 대표적인 학생용 및 사무용의자 9개 제품을 선정해 10년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승호 기자

이번 프로모션은 매주 릴레이로 제품을 업데이트해 최대 47% 할인가에 판매하며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텐터치 미니 핸드마사지기를 사은품으로 지급한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추가하면 ‘듀오백과 함께 바른생활’ 이모티콘을 선착순 무료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승호 기자